

간질환과 혈청철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의무부

황남철

Serum Iron in Liver Diseases

Medical Dept. Daehan Life Insurance Co. Ltd.

Hwang, Nam Chul, M. D.

머리말

간세포의 변성 과사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검사로는 GOT, GPT, LDH 등의 간상청분획효소의 혈중일탈을 들 수 있고, 동시에 간세포의 철이 유리되어 혈청철도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트란스아미나아제 (GOT, GPT)나 LDH와 같은 일탈효소는 간기능검사중에서 가장 예민하여 Screening test에 유용한 반면 혈청철은 선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간질환 진단에 있어서의 혈청철의 유용성을 고찰하는 뜻에서 간단하게 그 의의를 요약해 두고자 한다.

1. 간에 있어서의 철의 동태

정상 성인의 체내 총 철함량은 약 3~4 g이며 체중 kg당 50mg 정도가 된다. 그 2/3는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 및 조직효소로서 존재하며, 나머지 1/3은 저장철로서 망상내피계

와 여러 장기의 실질세포에 존재하는 ferritin과 hemosiderin에 분포되어 있다. (Table 1.)

저장철의 약 1/3은 간장에, 1/3은 골수에 그리고 나머지 1/3은 비장과 근육에 존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1일 1mg 전후의 철이 장점막의 박리나 피부 상피세포의 탈락등으로 손실되며, 식품중에서 약 1mg의 철이 주로 십이지장과 공장상부에서 능동 흡수된다.

혈청철의 총량은 3~4 mg이며 혈청중에서 는 간에서 생성되는 분자량 76,000의 당단백인 transferrin (β -globulin)에 결합하여 운반된다. 정상인에 있어서 transferrin의 약 1/3은 철과 결합하며 나머지는 미결합이다. 혈청중의 전transferrin과 결합할 수 있는 철의 총량을 총철결합능(total iron-binding capacity, TIBC)이라 하며, 불포화의 transferrin에 결합할 수 있는 총량을 불포화 철결합능(unsaturated iron-binding capacity, UIBC)이라 한다. 따라서 TIBC = UIBC + 혈청철 이된다.

간은 체내의 철 저장기로서 가장 중요하며 총량의 1/3~1/4을 함유한다. 간내에서는

Table 1. 체내 총 철함량과 분포

		mg in a 75kg male (approximate)	mg / kg (approximate)
Functional compounds	hemoglobin	2,300	31
	myoglobin	320	4
	hem enzymes	80	1
	non-hem enzymes	100	1
Storage complexes		2,800	37
	ferritin	700	9
	hemosiderin	300	4
	Total	1,000	13
		3,800	50

대부분의 철은 망상내피계세포에 있고 일부는 간실질세포에 존재하나, 양자를 엄밀히 구별하기는 곤란하다. 망상내피계세포의 철은 주로 적혈구 파괴에 유래하며, 간세포내의 저장철은 대부분 transferrin에 결합되어 운반된 것이며, 그밖에 heme-hemopexin 및 hemoglobin-haptoglobin 복합물 유래의 것도 있다.

간세포내에 있어서의 철은 통상적으로 단백 apoferritin과 철의 화합물인 ferritin으로써 저장된다. (Fig 1.) 철의 과잉상태에서는 ferritin분자의 응집된 불용성의 hemosiderin도 볼 수 있다.

정상치 : 65~157 $\mu\text{g}/\text{dL}$ (평균 110 $\mu\text{g}/\text{dL}$, 남 > 여), 불포화 철결합능 (UIBC) 191~269 $\mu\text{g}/\text{dL}$ (평균 226 $\mu\text{g}/\text{dL}$),

총 철결합능 (TIBC) 290~335 $\mu\text{g}/\text{dL}$ (평균 337 $\mu\text{g}/\text{dL}$).

2. 간질환에 있어서의 임상적 의의

간질환에 있어서 혈청철의 임상적 의의는 간실질장애에서 상승하며, 특히 급성간염의 절정기에서 증가하고 회복에 따라서 정상화한다.

이 상승은 주로 간세포증의 철의 일탈에 의한 것이라 생각되고 있다. 혈청철 및 혈청ferri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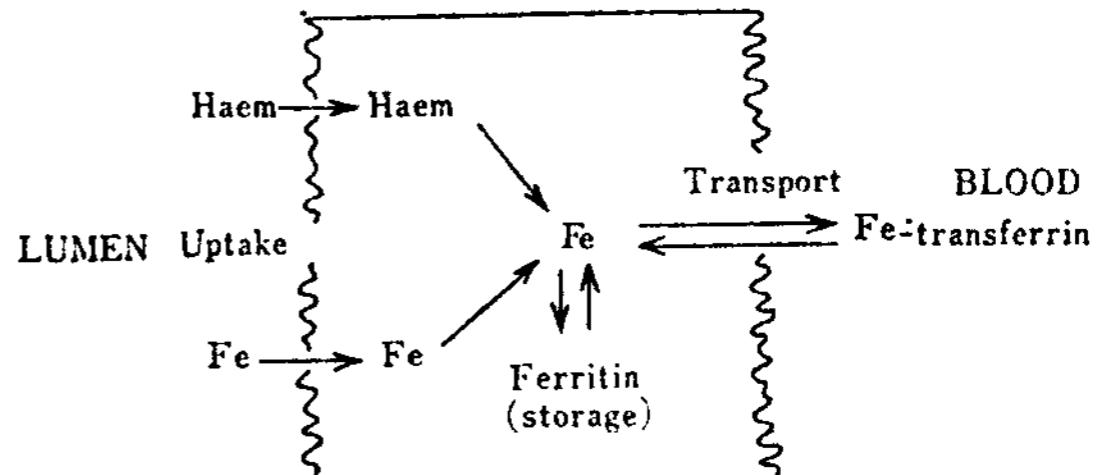


Fig. 1. 간에 있어서의 철수송

은 트란스아미나아제나 혈청빌리루빈과 함께 급성간염의 경과관찰에 유용하다. 또 급성간염에서는 UIBC의 감소를 볼 수 있다.

폐색성 황달에서 혈청철은 증가하지 않으므로 황달의 감별에도 유용하다. 만성 비활동성간염 20례와 활동성간염 20례에서 혈청철을 측정한 결과 비활동성 간염에서는 전 예에서 200 $\mu\text{g}/\text{dL}$ 이하 였으나 활동성간염의 6례 (30%)는 200 $\mu\text{g}/\text{dL}$ 이상을 나타냈다고 한다.

간경변에 있어서의 철대사는 복잡하며 통상적으로 혈청철은 정상 내지 상승의 경향을 나타내나, 한편으로는 간에 있어서의 transferrin의 생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TIBC의 감소와 포하계수의 상승을 볼 수 있다. (Fig 2.).

3. Hemosiderosis와 Hemochromatosis

일반적으로 간에 과잉의 철이 축적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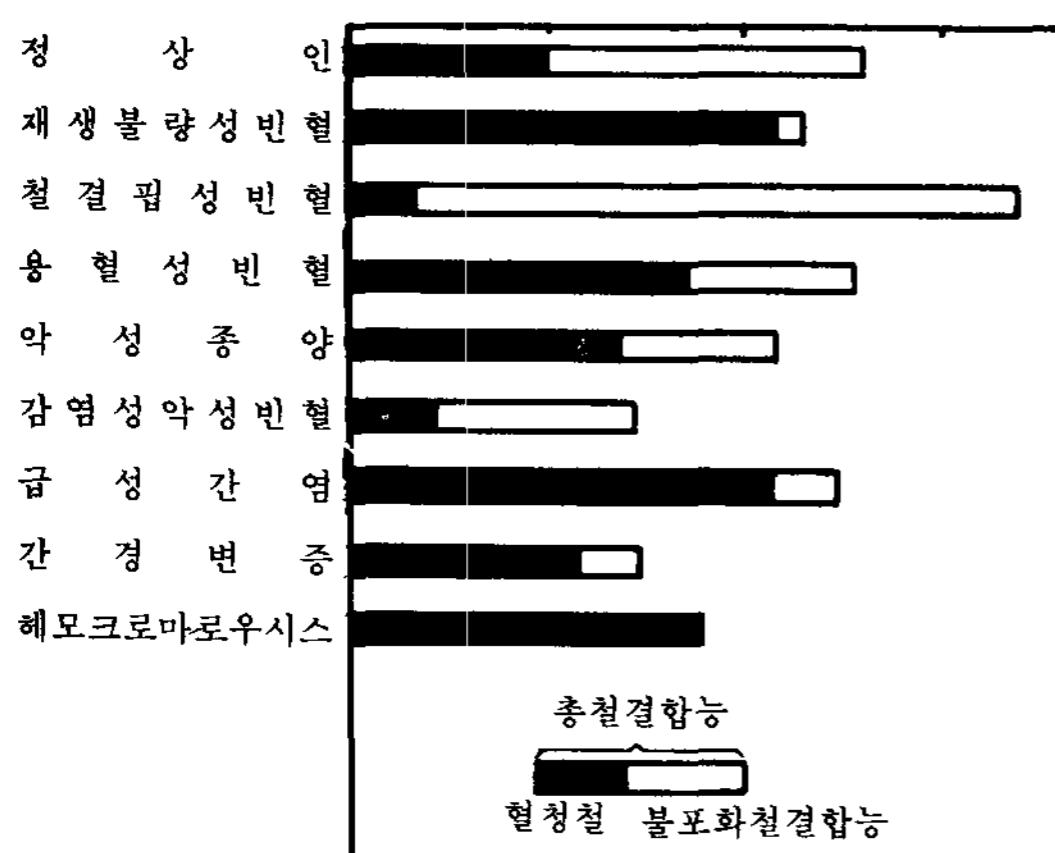


Fig. 2. 각종질환의 혈청철치와 TIBC 치의 관계

는 혈모시데로우시스와 혈모크로마토우시스로 대별된다. 전자는 간장해를 동반하지 않으나 후자는 간경변을 합병한다. 혈모시데로우시스는 체내 총 철함량의 증가의 유무에 따라 절대적 혈모시데로우시스와 상대적 혈모시데로우시스로 분류되기도 한다. 혈모크로마토우시스는 원발성과 속발성으로 대별되며 간경변, 피부의 색소침착, 당뇨병, 고환위축 및 탈모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원발성 혈모크로마토우시스에서는 장관으로부터의 철의 흡수가 항진된다고 하나, 그 병인에 있어서는 아직도 불명한 점이 많다. 혈모크로마토우시스에서는 혈청철은 상승하고 UIBC는 거의 없으며 90% 이상은 포화되어 있다. 혈청ferritin은 상승하며 이는 체내의 철의 저축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혈청ferritin은 혈모크로마토우시스의 치료효과를 판정하는데

유용하나, 조기의 혈모크로마토우시스에서는 혈청ferritin이 정상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각종 질환에 있어서의 혈청ferritin의 상승기전은 아직도 불명한 점이 많으나, 원발성 간암에서 볼 수 있는 혈청ferritin의 높은 수치는 간암세포 유래의 ferritin이라고 하며, 금후 원발성 간암진단의 지표의 하나로써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黃南喆 : 保險診查의 肝機能檢查法選擇基準. 保險醫學會誌 2:65~74, 1985.
- 2) 김노경 외 : 혈액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편, 29~36; 1985.
- 3) 刈米重夫 : 鉄および鉄結合能. 日本臨床 38:737~747, 1980
- 4) Bothwell TH, Charlton RW : Hemochromatosis. In Diseases of the Liver, 5 th ed. L Schiff and ER Schiff(eds). 1003~1042, JB. Lippincott, Company, Philadelphia, 1982.
- 5) Sherlock S : Diseases of the Liver and Biliary System, 6 th ed. 346~364, Blackwell Scientific Publications, Oxford, 1981.
- 6) Beaumont C, Simon M, Smith PM, Worwood M : Hepatic and Serum ferritin concentrations in patients with idiopathic hemochromatosis. Gastroenterology 79 : 877~883, 1980.
- 7) Kew MC, Torrance JD, Dermon D, Simon M, Macnaf GM, Charlton RW, Bothwell TH : Serum and tumor ferritins in primary liver cancer. Gut 19 : 294~299, 1978.